



Wednesday Noon Concert

2019 하반기 수요음악회

| 일시 | 9/25, 10/16, 11/20, 12/18(수) PM 12:20~13:00

| 장소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1층 로비



수요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열리는 수요음악회는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클래식 음악을 가깝게 접하며 교내 구성원들의 마음의 휴식처가 되고 싶다는 작은 희망으로 199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가을 학기 첫 수요음악회는 파스칼 드뵈이용의 드뷔시 전주곡 중 5곡과 프랑크의 프렐류드, 코랄과 푸가의 깊이 있는 피아노독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의 색채와 인상적인 음악의 세계가 다시 문을 활짝 연 수요음악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감동을 선사할 것 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수요음악회가 보다 다양하고 편안한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상남경영원장 이호근 / 음악감독 김영호

2019년 하반기 수요음악회 일정

09/25(수) 피아노 독주회

Pascal Devoyon (프랑스 대표 피아니스트)

10/16(수) 브람스 피아노 4중주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 김현아(바이올린),
김상진(비올라), 장우리(첼로), 김영호(피아노)

11/20(수) 바리톤 독창회

Christopher Temporelli (미국 미성의 성악가)

12/18(수) 크리스마스 자선 음악회

PROFILE

파스칼 드뵈이용 Pascal Devoyon

비오티, 부조니, 리즈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 이어 1978년 프랑스 출신 피아니스트로서는 처음으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면서 파스칼 드뵈이용은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파스칼 드뵈이용은 비쉬코프, 뒤트와, 크리빈, 잔데클링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런던 필하모닉, 파리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헬싱키 필하모닉,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쿄 NHK 심포니와 협연해 왔다.
파스칼 드뵈이용의 음반으로는 차이 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사를 뒤트와 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와 슈만 피아노 협주곡(Jerzy Maksymiuk 지휘,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과 라벨, 리스트, 프랑크, 슈만 리사이틀 실황이 있으며, 실내악으로는 스티븐 이설리스(포레 전곡, 생상스, 풀랑), 강동석(슈베르트, 포레 호네거), 필립 그라팽과 함께 작업한 음반들이 있다.

1999년부터는 강동석과 함께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악 아카데미 중 하나인 뮤직 알프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파리 음악원에서 피아노 교수로 재직한 후, 1996년부터는 베를린 대학 음대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9월부터는 제네바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1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로훈장 기사장을 받았다.

PROGRAM

DEBUSSY : 5 pieces from the Preludes(전주곡)

Danseuses de Delphes(델피의 무희들) – 1집 중 1번

델피의 무희란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 아폴로 신을 친양하는 제전 때에 춤추는 댄서를 말한다. 아테네의 폐허 파르테논의 부조를 보는 듯한, 백옥 같은 맨발의 무희들은 나는 듯이 가볍게 발을 옮겨 놓는 듯한 그리스풍의 청초감이 넘치는 작품이다.

La Puerta del Vino(비노의 문) – 2집 중 3번

비노란 술이라는 뜻으로 비노의 문은 스페인의 남부 그라나다에 있다. 하바네라 춤의 리듬으로 된 이 곡을 드뷔시는 “극단적으로 강렬한 것과 정에 넘치는 부드러운 것의 거친 대립으로” 연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Feux d'artifice(불꽃) – 2집 중 12번

스크리아빈의 “불꽃을 향하여”를 예견한 듯한 작품. 제목이 주는 이미지 그대로 고도의 테크닉과 엄청난 다이내믹을 수반하는 곡으로서 스물 네 곡의 전주곡 가운데 가장 격정적이고 난해한 곡이다.

Vent dans la plaine(들바람) – 1집 중 3번

초원을 스쳐가는 바람의 스케치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곡으로 상투적으로 표현되는 휘몰아치는 반음계의 패시지, 트릴이나 아르페지오가 아닌 건반을 오르내리는 간단한 단이도의 악형으로 놀라운 효과를 거두고 있다.

Les tierces alternées(3도의 변화) – 2집 중 11번

3도 음정으로 시종일관하는 소품으로 두 권의 전주곡을 통틀어 내용에 관한 어떤 것을 암시하는 대신 곡의 구조와 테크닉에 관한 제목을 가진 단 하나의 작품이다. 루비토는 허용하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정확한 리듬과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FRANCK : Prélude, Choral et Fugue(프렐류드, 코랄, 푸가)

리스트적인 화려함과 프랑크만의 독특한 화성의 색감을 내뿜는 프렐류드와 즉흥적인 코랄의 연결,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의 푸가로 구성된 이 곡은 구성과 주제의 전개 등에 있어서 고전주의적 프렐류드와 푸가 양식, 그리고 프랑크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면을 잘 융합시킨 작품이다.